

Plan II

21세기 유망직종, 물류관리사



제8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은 물류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14에 의거 지난 1997년 9월부터 매년 1회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물류관리사자격증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으로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 가미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16에 따라 물류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해 인터넷(www.jjang.co.kr)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기간은 일반 접수 기간보다 길게 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응시자가 자택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으로 한다. 합격자는 10월중에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21세기 유망직종, 물류관리사

일반인에게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알려져 있는 올해는 물류관리사 응시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유통산업 발전과 함께 수요가 기대되는 자격증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며 수송부문의 물량 파악, 배송관리 계획, 운송 관리계획 수립, 보관 및 재고관리 부문에 대한 효율적 측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지난해 화물대란, 동북아물류중심 국가 건설 등의 정책에 힘입어 그 어느때보다 물류관리사의 관심도가 높다 할 수 있다. 기업체나 물류관리사로 취업할 때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

[물류관리사 시험 통계]

구분	접수자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1회(1997년)	72,021명	30,027명	1,109명
2회(1998년)	18,845명	8,131명	439명
3회(1999년)	19,019명	8,781명	1,827명
4회(2000년)	11,683명	5,500명	269명
5회(2001년)	9,175명	4,025명	618명
6회(2002년)	7,688명	3,389명	560명
7회(2003년)	7,033명	3,302명	615명
합계	145,464명	63,155명	5,437명

Plan II

www.kola.or.kr

요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60~70년대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구매나 조달부서의 간부사원들은 대부분 물류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물류관리사 전망이 밝지 못하다.

지금까지 배출된 물류관리사들은 실무능력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해 현업에서 그리 환영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단순한 취업용보다는 물류전문가를 꿈꾸는 사람이 도전할 만한 자격증이라고 물류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물류협회가 작년에 제조업, 유통업 및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기업내 물류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 62.0%가 매우 높았으나, 없어도 된다는 의견도 38%를 차지해 아직은 물류관리사가 정착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물류관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의 물류관리사인식 부족, 직무능력결여,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명실상부한 21C유망 자격증이 될것으로 물류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제도의 문제점]

시험제도상의 문제	10.3%
기업의 물류관리사 인식 부족	29.9%
관리사 직무능력 결여	24.1%
관리사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21.8%
실무 교육프로그램 부재	13.8%
계	100.0%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물류의 전문지식에 대해 평가하는 시험이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0% 취업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선 (사)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에 들어가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5회부터 7회까지의 기출 문제가 게재되어 있다. 기출 문제를 통해 시험 문제 대한 난이도나 출제 유형을 예측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시험을 대비한 교재로는 일반 대형서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수험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수험 교재를 선택하면 된다.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처럼 60만원 이상의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교재를 판매하려는 목적에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시험 주관기관인 (사)한국물류협회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과 관련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

한편, 시험이 끝난 후 출제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수험생은 이의 제기기간 동안 한국물류협회 및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물류관리사 교재사기 기승 주의 당부

-계약철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서면 증명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어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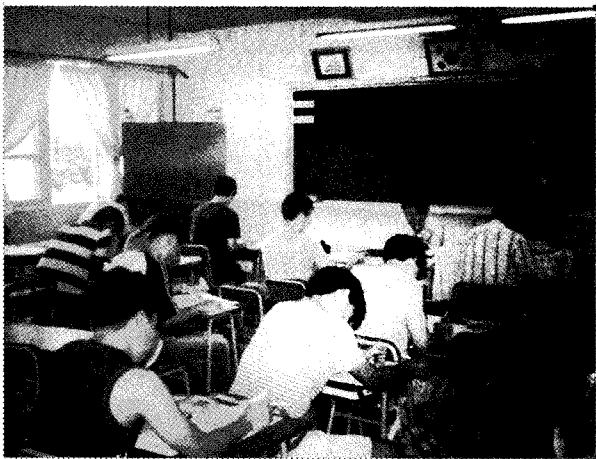
Plan II

www.kola.or.kr

재를 구입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교재는 앞서 말한 것처럼 1과목당 2만원에~3만원이면 시내 서점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와 유사한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고가로 교재를 구입해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상당히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한 전체 교재구입 피해 상담건이 2002년 3493건에서 2003년에는 3850건, 피해규제사례는 2002년 362건에서 2003년 364건으로 증가되고 있어 물류관리사 시험에 관심이 높아진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례 1 : 경상북도의 박씨는 작년 11월 24일 ○연수원으로부터 2004년에 시행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명예회원으로 발탁되어 매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교재를 68만 4000원에 구입했다.

● 사례 2 : 서울에 사는 손씨는 최근 모정보라는 곳에서 자격증 취득시 이사직 촉탁 및 월 58만원을

[원서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종합 (1~6회)]

구분		접 수 자		응 시 자		합 격 자	
전체인원		138,431	100%	59,853	100%	4,822	100%
성별	85.7	106,312	76.8	46,404	77.5	4,131	85.7
	14.3	32,119	23.2	13,449	22.5	691	14.3
연령별	10대	3,699	2.7	1,533	2.6	18	0.4
	20대	85,129	61.5	38,009	63.5	3,207	66.5
	30대	35,449	25.6	13,712	22.9	1,097	22.7
	40대	11,377	8.2	5,144	8.6	434	9.0
	50대이상	2,777	2.0	1,455	2.4	66	1.4
학력별	3.3	1,959	1.4	946	1.6	158	3.3
	39.2	43,889	31.7	17,138	28.6	1,888	39.2
	49.4	49,420	35.7	25,242	42.2	2,381	49.4
	8.4	40,345	29.1	15,333	25.6	406	8.4
	0.7	2,818	2.0	1,194	2.0	35	0.7

Plan II

www.kola.or.kr

지금받고 2개월이내 취업알선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환불조치와 2년간 관리해준다고 하여 12개월 할부로 60만원에 교재를 구입했다.

● 사례 3 : 사례 1, 2의 경우 모두 교재 구입후 계약 해지 희망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하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 사례 4 : 충청북도 한씨는 2002년 9월 물류관리사자격시험에 떨어지면 금액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모개발원으로부터 63만 7000원을 18개월 카드결제로 교재를 구입했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계속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운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 대상자가 대부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와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측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 인도일로부터 14일내로 청약철회를 철회할 수 있다. 단 계약 철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해야 법적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받는사람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그리고 해지사유를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한 뒤 복사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내용증명서는 총 3부로,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되며, 2~3일후 업체와 연락해 청약철회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교재 반환시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방문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물류**

